

# kt위즈, 내년 시즌 중위권 도약 꾀하다

## FA 황재균 영입

### 총액 88억원 계약 체결

3년 연속 최하위에 그친 막내 구단 kt 위즈가 국내 복귀를 선언한 자유계약선수(FA) 황재균(30)을 영입, 내년 시즌 중위권 도약을 선언했다.

kt는 13일 오전 내야수 황재균(30)과 계약기간 4년에 계약금 44억원, 연봉총액 44억원 등 총액 88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거물급 FA 중 한 명인 황재균을 영입하며 2015년 KBO리그 입성 이후 가장 화끈하게 돈가방을 풀었다.

황재균의 kt행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해 FA 신분 자격을 획득한 황재균은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1년 계약하며 빅리그에 진출했지만 시즌을 마친 뒤 국내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겨울 FA 시장에서 이렇다 할 투자를 하지 않은 kt는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면서 이번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황재균에 관심을 보였지만 미국 진출로 인해 영입에 실패했다.

1년 만에 국내 복귀한 황재균에게 다시 한 번 러브콜을 보냈고, kt 유니폼을 입히는데 성공했다.

한때 황재균 영입을 위해 100억원 이상을 쓸 것이라 설까지 있었고, 발표액은 90억원 밑돌았지만 그 동안 FA 시장에서 다소 소극적이던 kt의 행보로는 통큰 투자가 아닐 수 없다. kt는 3루수 자리에 황재균을 영입하면서 오랜 고민을 덜게 됐다.



황재균이 13일 오전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유태열 사장(왼쪽), 임종택 단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했다.

kt는 1군 진입 첫 해인 2015년과 지난해 외국인 선수 앤디 마르티네에게 3루수를 맡겼다. 올 시즌에는 오태곤과 심우준 윤석민 등이 내야 코너 자리를 맡았지만 적임은 아니었다.

황재균은 리그 정상급 3루수다. 10시즌 동안 1184경기에 출전해 0.288(416타수 119안타) 115홈런 59타점 605득점의 성적을 기록했다.

미국 진출 직전인 2016년 127경기에서

0.335(498타수 167안타) 27홈런 113타점 97득점 25도루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 사직구장을 사용하는 선수로는 최초로 20(홈런)-20(도루)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98경기 0.285(351타수 100안타) 10홈런 55타점 44득점 7도루를 기록했다.

18경기 출전 타율 0.154 1홈런 5타점에 그쳤지만 빅리그 경험도 있다. 공·수·주 3박자를 갖춘 황재균은 kt 내

의 핫코너를 맡는 동시에 중심타선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황재균이 미국 진출 직전 시즌의 활약을 이어간다면 kt로서는 전력을 크게 끌어 올릴 수 있다.

3시즌 연속 최하위 kt는 외국인 선수와 황재균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내년 시즌 탈락에는 물론 창단 첫 포스트시즌에 도전하는 첫 삽을 뜬 셈이다.

/뉴시스



## '전북학생교육원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성료

전북도학생교육원(원장 김형택)은 최근 제1회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는 속도경기(개인전)방식으로 남자부에서는 장계공업고 1학년 김영서 학생이, 여자부에서는 남원여고 1학년 이미란 학생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1위를 차지한 김영서 학생은(장계공업고) "먼 곳에서 와서 선생님님 서운하실까봐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화 인솔교사는 "1등을 해서 기쁘다 이런 다양한 체육 활동과 행사가 참 좋은 것 같고 내년에도 꼭 초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학생교육원 안동선 교육부장은 "이번 대회는 수련교육 추수지도와 내년 교육을 준비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타 학교 학생들과 선의를 경쟁을 펼치고 자기 계발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대회에 참가해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보완하여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 '암벽여제' 김지인, 월드컵 7차대회 준우승

암벽 여제 김지인(29·스파 이더코리아)이 2017 국제스포츠 클라이밍연맹(IFSC) 리드(lead) 월드컵 7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세계랭킹 2위로 시즌을 마쳤다.

김지인은 13일(한국시간) 슬로베니아 크란에서 열린 2017 IFSC 리드 월드컵 7차 대회에서 43홀드를 잡아 +44홀드를 기록한 안야 간브랏(슬로베니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11일 예선에서 두 가지 루트를 완등과 +35홀드로 마쳐 3위로 준결승에 진출한 김지인은 12일 준결승에서 완등을 기록해 전체 3위로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6번째로 출전한 김지인은 3위보다 10개 홀드를 앞선 43번째 홀드에서 정기를 마무리했다.

김지인은 올 시즌 7차례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따냈다.

특히 김지인은 지난 8월 월드컵 4차 대회에서 개인 통산 26번째 우승을 차지해 리드 부문 여자부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지인은 리드 부문 세계랭킹 2위, 월드컵 랭킹 2위, 통합 랭킹 2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매 시즌 크란에서 열리는 월드컵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대회 중 하나여서 열심히 준비했고, 컨디션도 좋았다"며 "마음을 비우고 최대한 편안하게 등반에만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김지인은 주말 중국에서 열리는 차이나 오픈에 초청받아 참가할 예정이다.

/뉴시스



# 신태용호, 1년만의 2연승 도전

## 오늘 세르비아와 격돌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를 잡고 반전에 성공한 '신태용호'가 유럽팀 세르비아를 제물로 연승에 도전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세르비아와 친선경기를 펼친다.

세르비아전은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2017년의 마지막 안방 A매치다.

한국은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이 겹친 올 시즌 9차례 A매치에서 단 2승(3무패)을 거두는데 그쳤다.

목표로 한 월드컵 본선행에는 성공했지만 그동안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카타르(2-3), 중국(0-1)에 털미를 잡히면서 승수 사냥에 어려움을 겪었다.

콜롬비아전에서 부지없는 모습으로 축구

팬들의 환심을 다시 산 신태용호는 세르비아전에서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세르비아를 꺾으면 한국은 지난해 11월 캐나다(2-0)-우즈베키스탄(2-1)전에 이어 꼭 1년 만에 연승을 거두게 된다.

최종 목표가 내년 월드컵인 만큼 다양한 실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표팀 에이스인 손흥민(보트넘)의 활용 여부다. 그동안 주로 측면에서 뛰던 손흥민은 지난 10일 콜롬비아전에서 투톱으로 변신해 두 골을 넣으며 다재다능을 뽐냈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대표팀으로 이어오지 못한다는 지적에 맘고생은 했지만 이번만큼은 영국에서의 경기력을 대표팀에 고스란히 투영했다.

신태용 감독은 "손흥민은 투톱, 사이드 윙톱도 설 수 있는 선수다. 지금 기회에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은 12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14일 세르비아전을 앞두고 몸 풀기 훈련에 앞서 신태용감독으로 부터 지시사항을 듣고 있다.

다 써보고 가장 좋은 것이 뭔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홀로 최전방을 책임질 수도 있다. "우리는 원톱 자원이 부족하다. 지금 기회에 해보지 않으면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없다. 경기 내용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활용해보겠다"는 복안이다.

세르비아는 유럽에선 D조에서 6승무패로 1위를 차지하며 러시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국제축구연맹(IFFA) 랭킹은 38위로 사흘 전 상대한 콜롬비아(13위)에 비해 순위는 떨어지지만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둬 정도 분위기는 좋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